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72)(5/28/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45 장 사람은 말에서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믿지 않아야 함, 5 절

마 5:44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롬 12:18 -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마 7:12 -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잠 25:9-11 - 9.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10.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11.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5.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침묵하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무턱대고 믿지 않으며, 사람들에게서 들은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내며,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늘 찾고, 바람 같은 온갖 말들에 휘말리지 말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화평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유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피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외적인 일들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에 대하여 뜨거운 열심을 내는 데 유익한 일들에 온 힘을 쏟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덕이 제대로 성숙되기도 전에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의 칭송을 듣게 된 까닭에 해를 입어 왔습니까. 시험과 싸움으로 가득한 이 살얼음판 같은 삶 속에서 조용히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유익이겠습니까.

말씀과 해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신도 남에게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질까? 1)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한다. 요 13:34 -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마 5:44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요일 3:16 -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했다. 롬 12:18 -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가능하다.

둘째, 원수를 향한 복수를 거두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다. 심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롬 12:19-20 - 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윗은 군대까지 동원하여 집요하게 자신을 추적하고 죽이려고 한 사울 왕에게 자신이 직접 복수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이다. **삼상 26:9-10 - 9.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살면서 억울한 일, 부당한 피해, 공격, 비난 등을 당할 때,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겨드리라. 주께서 반드시 합당하게 처리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2) 남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다. **마 7:12 -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을 나에게서 남에게로 옮기게 하며, 남을 위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예수님은 남을 대접하는 마음의 기준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에서 찾으라고 하신다. 예수님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기준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릴 것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레 19:18)**는 말씀과도 연결된다. 하나님은 이웃 사랑의 기준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고, 나를 배려하듯이 남을 배려하며,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듯이 남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남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 수 있다.

3) 남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사람은 말을 하는 것, 듣는 것, 전하는 것을 조심한다. **잠 25:9-11 - 9.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10.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11.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 성경은 거짓말을 경고하며 거짓 증거와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경계한다. **출 20:16 -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 23:1 -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남을 모함하는 말을 전하는 것은 남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큰 시험에 빠지게 한다.**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며, 그와 함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 늘 애써야 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마 6:13).**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나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고 남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며 새로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북한땅을 장악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겔 37 장에 기록된 소생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3. 창립 50 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